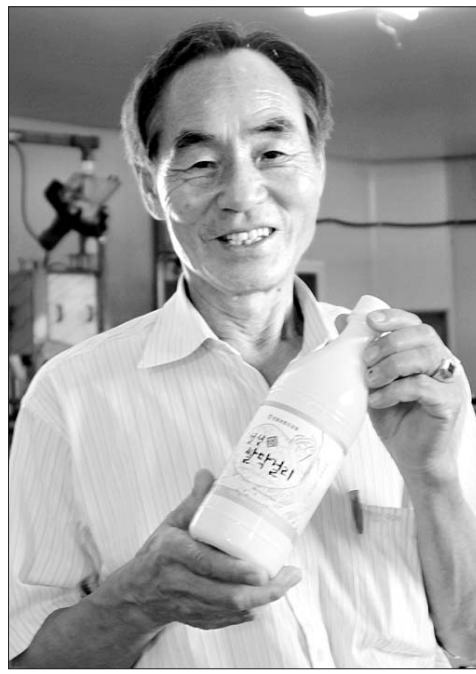


남도전통식품평회 3개부문 최우수상 강진 병영주조장 김견식씨

“우리 지역 물·쌀로 만든 막걸리 맛이 최고죠”



“술을 빚는다는 것은 정직함과 성실한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 좋은 재료가 준비돼야 하는데 우리 물에 우리 지역 쌀로 만든 막걸리가 최고거든요.”

농민식품부와 전남도가 주관한 제2회 ‘남도전통식품평회’ 10개 부문 중 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견식(73) 강진 병영주조장 대표의 소감이다.

50년째 운영... 2008년부터 日 수출

이번 평평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전통술 제조업체에서 고유의 전통비법으로 빚은 22가지 제품을 출품했다.

김 대표는 설성막걸리와 병영사또주를 ‘생막걸리’·‘살균막걸리 및 증류식소주’ 3개 부문에 출품해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대

표의 막걸리는 지난 5월 ‘남아공월드컵 16강 진출기원 대표 막걸리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후 이번 남도 품평회에서 최우수 명주로 선정됐다. 김 대표는 해방 직후 친척이 운영하던 양조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정부의 양곡정책으로 사양길로 접어들며 무렵 양조장을 인수해 50여년째 운영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는 강진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쌀을 이용해 막걸리를 만들고 있다.

“온갖 재료로 막걸리를 빚어왔지만 역시 우리 지역 재료를 이용해 만든 맛을 따라가지 못하더군요.”

김 대표의 막걸리는 최근 들어 상도 받는 등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과거에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1960~70년대엔 식량 부족으로 인해 쌀이 아닌 밀가루로 만든 탓에 트림이 많이 나는 등 문제로 판매가 저조했고, 쌀로 만들기 시작한 10년 전에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따라가

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수천번의 시행착오 끝에 알코올농도와 당, 맛 등을 철저히 검사해 숙성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거름망용 사용해 침전물이 적은 막걸리를 만든 결과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강진쌀을 재료로 사용하면서 지역 농협에서 1년에 10만2000kg 쌀을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일조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는 ‘막걸리’라는 브랜드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남아공월드컵 대표 막걸리 입상

김 대표는 “50년간 양조장을 하면서 요즘같이 보람을 느낀 것은 처음”이라며 “막걸리 판매량이 늘면 자연스레 쌀 소비량도 늘는 만큼 지역 농촌과 상생할 수 있는 술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안산·화성서 태풍 피해 전기시설 복구

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회장 류재선)는 5~6일 이틀동안 태풍 ‘콘라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산과 화성을 찾아 전기시설 긴급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번 긴급복구에는 광주·전남 30여개 업체 100여명의 기술인력이 40여대의 활선차량 및 크레인을 끌고 참여해 강풍에 쓰러진 전선주 고장파괴 끊어진 전선 연결, 전선에 걸린 나뭇가지 철거 등 복구 활동을 벌였다.

류재선 회장은 “과거 전남도에 수해시 타 지역 전기공사업체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자신의 일처럼 복구해줬다”면서 “또 다른 태풍이 다가오면서 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내 일처럼 열심히 복구에 참여해준 업체들과 기술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인문학 대가 영 이글턴 교수 전남대 특강

세계적 인문학의 대가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 영국 랑카스터대 교수가 오는 9일 오후 4시30분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 ‘신념과 근본주의’를 주제로 초청강연에 나선다.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전남대 영미문화연구소와 영영언어학과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010년 해외석학 초청 인문학강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인문학의 상황을 통해 분석하고, 인문학적 생존과 지속의 조건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글턴 교수는 문화·문화 비평이론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최근 종교와 신의 문제, 윤리의 내면 논리, 고통과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인문학적 성찰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농협, ‘이달의 새 농민상’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이달의 새 농민상’ 9월 수상자로 조형일·박재남(성보농장), 윤기제·전태심(예찬농원), 임동화·박경임(유진농장)씨 부부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조씨 부부는 한우 생산성 증대와 지역산업 브랜드 이미지개선에 명경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윤씨 부부는 농장과 깻벌이를 체험을 연계해 농수산물 판매에 공헌했다. 임씨 부부는 딸기 판로개척에 앞장선데 이어 토경재배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농법을 개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3년간 받은 장학금 복지시설 기부한 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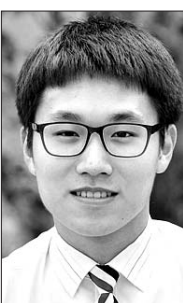
조대부고 손준연군 300만원 모아

광주의 한 수험생이 3년간 받은 장학금 전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조성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손준연(18)군. 손군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시 북구 자야동 예수마리아요셉보호원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한 후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 돈은 손군이 고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성적 장학금으로 받아 한 톨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다.

“처음에는 해외 배낭여행을 갈 때 쓰려고 모았는데 봉사활동을 다니던 곳에 기부하면 훨씬 가치있게 쓰일 것 같아 결정하게 됐어요.”

고교 1학년 때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한 봉사활동은 한 달에 1~2번은 꼭 하고 있다. 노인 전문 치료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청소며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등 ‘든든한 손자’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봉사활동 뿐 아니라 2학년 때부터는 매월 1만원씩 복지시설에 후원도 하고 있다. 많지 않은 용돈을 쪼개 기부하고 있는 것이다.



손군은 “빌게이츠나 김연아 선수·문근영씨 등 사회의 훌륭한 인물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며 “장래 직업이 의사인데 되고 난 후에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할머니들이 고춧잎 팔아 장학금 기탁

담양 통천리 여성 노인회

담양의 한 마을 할머니들이 고춧잎을 팔아 마련한 돈을 지역의 인재를 위해 써달라고 기탁해 감동을 주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용면 통천리 노인회 김영자(가운데) 총무와 송종연(오른쪽) 마을 이장이 회형식 군수를 찾아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50만원을 기증했다.

통천리 여성 노인회 할머니들은 올 여름 동안 기른 친환경 고춧잎 등 농작물을 판매해 모은 30여만원과 자신들의 용돈을 아끼 20만원을 보태 장학금을 마련했다.

김영자 총무는 “평소 군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심시일만 모았다”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오히려 미안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지역 인재에게 소중히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노인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은 장학금 기탁 소식이 전해져 감동이다”며 “도움이 절실한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인사

◆천주교광주대교구청

- 박영웅 교구청 고해성사 전담 ▲이정남 품양동 주임 ▲송현섭 신창동 주임 ▲이성규 화순 주임 ▲김형수 연향동 주임 ▲이영현 지전동 주임 ▲전영안 안식년 ▲이종희 삼각동 주임 ▲박희동 산수동 주임 ▲안호석 학운동 주임 ▲김승희 영암 주임 ▲김서규 매곡동 주임 ▲강종훈 녹동 주임 ▲박철수 완도 주임 ▲이부연 신기동 주임 ▲오갑철 지산동 주임 ▲정경수 장흥 주임 ▲손대철 차평동 주임 ▲박재완 도화 주임 ▲한덕수 경동 주임 ▲배행기 장덕동 주임 ▲조영대 평생교육원장 ▲김창근 벌교 주임 ▲최민석 하남동 주임 ▲김종복 신동 주임 ▲조진우 비야동 주임 ▲윤반호 삼호 주임 ▲최기원 나주 주임 ▲오재선 월산동 주임 ▲이봉문 교포사목 미국(마이애미) ▲김응운 북동

원로소설가 김성한씨 별세

원로 소설가이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김성한씨가 지난 6일 오후 5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합천남도 풍산 출신인 고인은 일본 도쿄대를 중퇴하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195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소설가로 등단했다. 빈소는 일원동 서울울산성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9일 오전 10시이다. 문의 02-2227-7547. 연합뉴스

해학극 대가 서희승씨 별세

영광출신으로 한 평생 연극 무대를 지키며 해학극의 대가로 사랑받아온 중견 배우 서희승씨가 7일 병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58세. 고인은 극단 메아리, 이해랑이동극단을 거쳐 1972년 국립극단 연극인 양성소에 들어가 뒤 36년 동안 국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했다. 빈소는 연세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은 9일 오전 10시이다. 문의 02-2227-7547. 연합뉴스

원로소설가 김성한씨 별세

원로 소설가이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김성한씨가 지난 6일 오후 5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합천남도 풍산 출신인 고인은 일본 도쿄대를 중퇴하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195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소설가로 등단했다. 빈소는 일원동 서울울산성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9일 오전 10시이다. 문의 02-2227-7547.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정진락·허영숙씨 장남 지훈군 이석용(광주 동구청 복지지원국장)·이정애씨 장녀 정아양=12일(일) 낮 12시20분 서구 상록웨딩홀 3층(무궁화홀) ▲정동화(광혜교회 목사)·조양숙씨 장남 용준군 손주영·강길재씨 장녀 현진양=11일(토) 오후 1시 서구 상록웨딩홀 3층(무궁화홀)

동창·동문회

▲광주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형수) 정기이사회 및 임원연수=10일(금) 오후 7시 광주직접자수련원. ▲광주보건대학 사회복지과(총동문회장 김문기) 20주년기념 행사=11일(토) 오전 11시 라마다플라자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요법, 푸드아트테라피, 매 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아이가 입학하기 전까지 사랑으로 양육해주시실 위탁모 모집=25~55세 이하로 막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소정의 양육비 및 교통비 지급. 양육물품 일체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등 상담. 062-363-0442~3.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 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요법, 푸드아트테라피, 매 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모집

▲아이가 입학하기 전까지 사랑으로 양육해주시실 위탁모 모집=25~55세 이하로 막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소정의 양육비 및 교통비 지급. 양육물품 일체

지금.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북구 거주자에 한함.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시아동상담소(062-227-8877) ▲한국노인대안학교 퇴직 후 30년 노후생애준비학교 학생모집=노후생애변화, 생활영어, 웃음치료, 교육기간은 10월부터~12월까지(3개월·전액무료) 자격은 고졸이상퇴직자, 학습결격없거나, 원서접수는 20일, 본인지참(원서,이력서,주민등록각1매) 동부경찰서연 MBC교육원 5층. 062-223-1357, 019-9152-5023. ▲북구문화원 사회교육강좌 수강

생 모집=푸수지리, 생활역학, 명심보감, 관상학, 노래교실. 062-527-7701.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마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문의 061-330-4169.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중앙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용마 축구클럽 회원 모집=건강한 생활 추구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 용산 초등학교에서 매주 일요일 오전 7~11시까지. 011-607-7462.

부음

▲빈형군씨 별세 명희·혜숙·명신·명주·명미·명진씨 부친상 유영

▲김향훈(남양건설 소장)·김재학(금영산업개발 이사)·박기우·김경태(광주은행 소비자보호실장)·장정문씨 부부상=발인 8일(수)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임재영씨 별세 중호·승호·정화·춘화·선아씨 부친상=8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남북득씨 별세 박정원·용원·수원·순자·명례씨 모친상=발인 8일(수)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부음

▲빈형군씨 별세 명희·혜숙·명신·명주·명미·명진씨 부친상 유영

Advertisement for a funeral home (금호장례식장) with details for several funerals, including names, dates, and times.